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광중앙위원회를 복습으로 사수하자!

1 번 에서 계속

넓고 시원한 운동장과 규모있게 일떠선 지휘부청사들을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마음에 든다고, 부대를 돌아보니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합심하여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최정

예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면모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오시며 창립 50돐이 되는 올해에 오중총7면대 칭호를 반드시 정취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에속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속선전대원들이 담질 작품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련

합부대가 지키고있는 조소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오시며 사회주의조국을 총대앞으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의 장병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어 무적의

달력과 지력을 안겨주시고 당중앙드락을 지켜선 문전보초병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굶주리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할 총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도미니카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이 도미니카 열비스출판사에서 2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빛내어나가자》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2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몽골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몽골인민당장기 96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몽골인민당은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피날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576호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 평양기계종합대학 정보공학부
- 평양기계종합대학 사회과학부
- 류경진실관리국 건설장비관리소
- 출판지도국 인쇄화학공장
- 온하지도국 온하기술준비소
- 정주온하미복공장
- 승호리세멘트공장 내회원과직장
- 베전관 베전소학교
- 해주리관
- 은골군방곡수급사업소
- 승호군승배전소
- 목산군 사현협동농장 파수작업반
- 강계제1중학교
- 함북일보사 인쇄공장 김책분공장
- 명간군의악용관피소
- 김책시 호룡협동농장 제1작업반
- 명간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사 설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오늘 우리는 주체조선의 부전적강한 국력이 힘있게 파시되고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에서 역사적인 3.1인민봉기 98돐을 맞이하고있다. 3.1인민봉기는 건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일애국투쟁으로 민족해방투쟁사에 뚜렷한 자취를 새기였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증세기적인 식민지와 착취를 실시하면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고 삼천리 강토를 피바다에 잠겼었다.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상가집계만도 못한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겨레의 앓이고생인 원한과 분노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첫 민족적인 반일투쟁으로 폭발하였다. 3.1인민봉기는 조선민족은 결코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3.1인민봉기는 발흥까지 무장한 원한과 분노를 무장으로 맞서쳐야 하며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총대앞에서 쟁취한다는 피의 교훈도 남겼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자주적운동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강도 일제에게 주권과 국토, 재부를 쟁그리 강일당하고 망국노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인민이 민족세력의 새불을 맞이할수 있었던것은, 세계 《희망》을 뽐내던 미래와 맞서 조국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명동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었던것은 총대를 자주권수호의 보검으로 뽑아쥐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어오시고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혼돈한 도태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총대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민족자주위원회는 오늘 때두산이 남은 또 한분의 집결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의하여 최후승리의 머명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교훈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기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넘볼수 없는 동방의 령장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비전막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는 해외의 온 겨레에게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자주통일의 승리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장대한 사변이다. 지금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백승의 명도가 있는 한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있는것을 확신에 넘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애국선열들의 불굴의 기개와 넉을 이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위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업무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래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대행령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지를 그 무슨 《경의위안》으로 꺾고들면서 반공화국제세압박과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력사의 혼란한 실낱을 받은 박근혜역도의 동족대결정책을 탐습하면서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과거로 몰아가고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의 친년숙적인 일본의 피비린 피거리를 약도 눈감아주고 제침을 끄는 사무라이후손들과의 군사적공모질탁도 서슴지 않고있다.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발악적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전황적극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파강히 떨쳐 나설것을 결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만의세,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세계를 이어 지속되는 미래의 남조선강국을 광장하게 위한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침략과 견제의 화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과 핵전쟁을 저지파탄시키며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침미사태를 일삼으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업에 도전하는 반통일사대파 국가들에게 무자비한 질주불 안겨야 한다. 남로 로동화되는 일본반통일들의 세침책동과 그에 출아나는 남조선의 전일대국세력의 위험한 혼돈을 철저히 짓물개버려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강박하는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광풍의 복침책동과 동족대결을 짓부시기 위한 단련평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위적력역세력을 무력하고 꺾고들지 말아야 하며

부분별한 무력충돌과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위협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의 두피는 요인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단호히 반대해격하며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온갖 적대행위들과 모략책동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심판을 받고 시궁창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관계개선을 지해하는 방향을 걸어야 한다. 온 겨레가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한다.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들은 민족통일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편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을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배합하며 북남선언들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친민족적인 통일대회를 실현하여 뜻깊은 올해에 반드시 자주통일의 전황적극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집세위인의 손길따라 나아가는 자주통일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자이다. 전체 조선민족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나갈 때 조국의 자주적통일업은 빛나게 성취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열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의의깊은 해로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